

「나무 속엔 물관이 있다」 _ 고재종

※ 다음 글을 읽고 주제 방향성을 잡으시오.

젓은 바람 속의 겨울 감나무를 보면, 그 가지들이 가는 것이나 굵은 것이나 아예 실가지거나 우듬지*거나, 모두 다 서로를 휘방 놓는 법이 없이 제 숨결 닿는 만큼의 찰랑한 허공을 끌어안고, 바르르 떨거나 사운거리거나 건들대거나 획획 후리거나, 제 껌냥껌 한세상을 흔들거린다.

그 모든 것이 웬만해선 흔들림이 없는 한 집의 주춧기둥 같은 등치에서 뻗어 나간 게 새삼 신기한 일.

더더욱 그 실가지 하나에 얹은 조막만한 새의 무게가 등치를 타고 내려가, 칠흑 땅속의 그중 깊이 뻗은 실뿌리의 흙살에까지 미쳐, 그 무게를 견딜 힘을 다시 우듬지에까지 올려 보내는 땅심의 배려로, 산 가지는 어느 것 하나라도 어떤 댕바람에도 꺾이지 않는 당참을 보여 주는가.

아, 우린 너무 감동을 모르고 살아왔느니.
- 고재종, 「나무 속엔 물관이 있다」

* 우듬지: 나무의 꼭대기 줄기.

✓ 주제 방향성 :

#EBS의 시선

이 시는 겨울 감나무를 관찰하고 깨달은 생명의 이치를 노래하는 작품이다. 1연에서는 겨울 감나무 가지를 보고 서로 다치지 않게 바람에 흔들리는 모습을 통해 자기 분수만큼 살아가는 모습에 주목하고 있다. 2연에서는 한 등치에서 뻗어 나간 여러 형태의 가지들의 모습을 강조하고 있으며, 3연에서는 땅속 깊이 닿아서 물을 빨아올려 꼭대기 끝까지 물을 공급하는 등치 밑뿌리의 모습에 주목하고 있다. 겨울나무가 보여 주는 생명력을 발견한 화자는 4연에서 감동을 느낌과 동시에 생명의 원리에 주목하지 않는 인간의 삶에 대한 안타까움을 드러내고 있다.

- 1연: 자기 분수에 맞게 살아가는 감나무의 가지
- 2연: 하나의 등치에서 뻗어 나온 감나무의 가지
- 3연: 어떤 댕바람에도 꺾이지 않는 당참의 근원이 되는 힘
- 4연: 인간의 삶에 대한 성찰

✓ 주제 : 겨울 감나무를 통한 인간 삶의 성찰

- ① 1연에서 연결 어미 '-이나', '-거나'의 반복을 통해 운율감을 형성하고 있다.
- ② 바람 속에 흔들리는 감나무 가지들을 보며 휘방 놓는 법이 없이 허공을 끌어안고 있다고 한 부분에서 의인화의 기법을 활용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③ '바르르', '획획' 등에서 음성 상징어를 활용하여 대상의 모습을 역동적으로 나타내고 있다고 볼 수 있다.
- ④ '겨울 감나무'에서 겨울의 계절감이 드러나 있다.
- ⑤ 4연에서 화자는 겨울 감나무의 흔들리는 가지를 보며 나뭇가지들이 서로를 휘방하지 않고 흔들리고 있으며, 나뭇가지에 얹은 새의 무게를 견딜 수 있는 힘이 나무의 등치를 타고 나온다는 깨달음을 얻고 있다. 그리고 이를 '우린 너무 감동을 모르고 살아왔느니'라고 말하여 인간 보편의 삶에 대한 성찰로 확장하고 있다.
- ⑥ '찰랑한 허공'은 감나무의 가지들이 욕심내지 않고 다른 가지들과 서로 공존하며 공유하는 공간이다.
- ⑦ '칠흑 땅속'은 감나무의 실가지가 자신에게 생명을 기고 있는 존재의 무게를 견디게 하는 힘을 얻는 공간이다.
- ⑧ 이 작품은 겨울바람 속에서 흔들리는 감나무에 주목하여 중심을 잡으며 생명을 지탱할 수 있는 힘을 가진 존재를 통해 생명의 이치에 대해 얻은 깨달음을 전달하고 있다.
- ⑨ '조막만한 새의 무게'는 감나무의 실가지가 '어떤 댕바람에도 꺾이지 않는 당참'이 있는 힘을 가졌음을 보여 주는 존재로 볼 수 있겠군.
- ⑩ 흔들림이 없는 '주춧기둥 같은 등치'는 외부의 상황 변화에 동요됨이 없이 생명을 지탱하는 여유를 가진 존재로 볼 수 있겠군.
- ⑪ '젓은 바람'은 감나무 가지가 흔들리는 원인이 된다는 점에서 화자가 겨울 감나무의 모습을 주목하여 관찰하는 계기가 된다고 볼 수 있겠군.
- ⑫ '제 껌냥껌 한세상을 흔들거'리는 모습은 저마다 가치 있는 존재로 살아가는 모습을 시각화한 것으로 볼 수 있겠군.

[THE - 깊은 독해]

*제목에서 '물관'은 쉽게 말해 나무 속에 물이 흘러가도록 만들어진 관, 즉 물의 통로를 뜻한다. 이 작품에서는 눈에 보이지 않는 소통의 통로, 사물 사이의 연합을 이루는 끈끈한 밑바탕, 다양한 존재를 하나로 묶어 주는 근원 등의 의미를 지니고 있다.

짙은 바람 속의 겨울 감나무를 보면,

→ 시적 대상 '겨울 감나무'가 제시되었다. 화자의 관찰 대상이다. 계절감이 드러나는 시어가 사용되었다.

그 가지들이 가는 것이나 굵은 것이나 아예 실가지거나 우듬지거나, 모두 다 서로를 휘방 놓는 법이 없이 제 숨결 달는 만큼의 찰랑한 허공을 끌어안고, 바르르 떨거나 사운거리거나 건들대거나 휙휙 후리거나, 제 껌냥껏 한세상을 흔들거린다.

→ '가는 것', '굵은 것', '실가지', '우듬지' 등 다양한 가지들이 나온다. 이때 조사의 반복을 통해 운율감을 형성하고 있다. 이러한 감나무 가지들이 다른 가지들을 방해하지 않고, 자기의 숨을 내뿜 만큼만의 허공을 차지하고 지내는 상황, 즉 가지들이 육십내지 않고 다른 가지들과 공존하며 지내는 상황이다. 배려하는 태도(뉘방 놓는 법 없이)와 분수를 아는 태도(제 숨결 달는 만큼의 허공을 끌어안고)가 드러난다. 이후 가지들이 자기 나름의 방식으로 바람에 흔들리는 모습을 열거하고 묘사하였다. 여기서 '껌냥껏'은 어떠한 일에 대해 자신이 할 수 있는 능력 만큼이라는 뜻으로, '제 껌냥껏 한세상을 흔들거린다'는 것은 자기 나름대로 분수에 맞게 살아가는 모습을 나타낸 것으로, 저마다 가지 있는 존재로 공존하며 살아가는 모습을 시각화하여 표현한 것이다. 의인법과 음성 상징어('바르르', '휙휙')가 사용되었다. 해당 구절에서 '사운거리다'는 사전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단어인데, '사분거리다'(가만가만 가 법계 행동하다)의 의미로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

▶1연 : 자신의 방식대로 흔들거리는 감나무 가지

그 모든 것이 웬만해선 흔들림이 없는 한 집의
주춧기둥 같은 등치에서 뻗어 나간 게 새삼 신기한 일.

→ 똑같은 감나무(한 집) 줄기에서 뻗어나간 가지들인데, 그 가지들이 매우 다양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에서 화자는 신기함을 느끼고 있다. 화자의 정서가 직접 제시되었으며, 일상적이고 평범한 것에서 새로운 의미를 발견하는 화자의 모습이 나타난다. 여기서 '그 모든 것'은 가지들의 다양한 모습을, '주춧기둥 같은 등치'는 감나무의 밑동을 가리킨다. '웬만해선 흔들림이 없'이라는 표현에서 감나무의 굳건한 이미지가 드러난다.

▶2연 : 하나의 등치에서 뻗어나간 감나무 가지들의 신기함

더더욱 그 실가지 하나에 얹은 조막만한 새의 무게가 동치를 타고 내려가, 칠혹 땅속의 그중 깊이 뻗은 실뿌리의 흠살에까지 미쳐, 그 무게를 견딜 힘을 다시 우듬지에까지 울려 보내는 땅심의 배려로, 산 가지는 어느 것 하나라도 어떤 댕바람에도 꺾이지 않는 당참을 보여 주는가.

→ 감나무 가지가 세찬 바람에도 꺾이지 않는 이유를 상상하고 있다. 새의 무게가 감나무 밑동을 타고 땅속의 뿌리로 전달되고, 땅의 힘으로 땅속의 물이 가지 꼭대기까지 전해짐으로써, 살아 있는 가지는 세찬 바람에도 꺾이지 않는 단단함을 보여준다고 생각하고 있다. 새와 땅이 나무의 물관을 매개로 상호작용하는 과정을 상상한 것이다. 시 제목에 나온 '물관'의 의미가 나타나 있으며, 눈에 보이지 않는 상황을 통찰하는 세심한 관찰력이 엿보인다. 이때 '칠혹 땅속'은 감나무의 생명력의 근원이며, '실뿌리'는 땅속의 생명력을 감나무에 전달하는 존재이다. '어떤 댕바람에도 꺾이지 않는 당참'은 어떤 시련도 견뎌내는 힘을 의미한다. 하강의 이미지('타고 내려가')와 상승의 이미지('울려 보내는')가 나타나 있다.

▶3연 : 어떤 댕바람에도 꺾이지 않는 당참의 근원

아, 우린 너무 감동을 모르고 살아왔느니.

→ 감나무와 같은 자연물도 교류를 통한 생명의 원리를 보여주는데, 인간은 생명 순환의 감동을 모르고 있다는 안타까움이 나타난다. 자연과 인간의 대비를 통해 감나무의 감동을 지니지 못하고 있다는 반성적 성찰을 드러내고 있다. 이때 '아'는 안타까움을 드러내는 영탄적 표현에 해당한다.

▶4연 : 인간의 삶에 대한 성찰

→ 산문투의 문장으로 유장한 리듬감을 형성하고 있으며, 다양한 문장 종결(평서형, 명사형, 의문형, 감탄형)을 통해 상황과 정서를 나타내고 있다.

[수능적 독해 Point]

- 화자 : 화자 '나'는 겉으로 드러나 있지 않고, '우리'로 확대됨
- 상황 : 감나무의 모습과 생태를 관찰하고 있음
- 정서·태도 : 관찰, 깨달음, 인간에 대한 반성과 안타까움

[연 관 - 기 출 문 제]

[1~3] 다음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너는 서해 뺨을 적시는 노을 속에 / 서 본 적이 있는가
 망망 뺨 발 속을 헤집고 바지락을 캐는 여인들
 한쪽 귀로는 내소사의 범종 소리를 듣고
 한쪽 귀로는 선운사의 쇠북 소리를 듣는다
 만권의 책을 쌓아 올렸다는 채석강 절벽
 파도는 다시 그 만권의 책을 풀어 흘러
 뺨 발 위에 책장을 한 장씩 넘긴다
 이곳에서 황혼이야말로 대역사를 이루는 시간
 가슴 뜨거운 불꽃을 사방으로 던져
 내소사 대웅보전의 녑살문 연꽃 몇 송이도 / 활짝 만개한다
 회나무 가지를 치고 오르는 청동 까치 한 마리도
 만다라*와 같은 불립 문자로 탄다
 곰소의 뺨 강을 건너 소금을 저 나르다 머슴 등허리가
 되었다는
 저 소요산 질마재도 마지막 술 빛으로 익는다
 쉬어라 쉬어라 잠시 잠깐
 해는 수평선 물 밑으로 가라앉는다.

- 송수권, 「대역사(大役事)」-

* 만다라 : 우주 법계의 온갖 덕을 망라한 진수를 그림으로 나타낸 불화.

(나)

젓은 바람 속의 겨울 감나무를 보면, 그 가지들이 가는
 것이나 굵은 것이나 아예 실가지거나 우듬지*거나, 모두
 다 서로를 휘방 놓는 법이 없이 제 숨결 닿는 만큼의 찰
 랑한 허공을 끌어안고, 바르르 떨거나 사운거리거나 건들
 대거나 획획 후리거나, 제 껌냥껏 한세상을 흔들거린다.

그 모든 것이 웬만해선 흔들림이 없는 한 집의
 주춧기둥 같은 동치에서 뺨어 나간 게 새삼 신기한 일.

더더욱 그 실가지 하나에 얹은 조막만한 새의 무게가 동
 치를 타고 내려가, 칠후 땅속의 그중 깊이 뺨은 실뿌리의
 흙살에까지 미쳐, 그 무게를 견딜힘을 다시 우듬지에까지
 올려 보내는 땅심의 배려로, 산 가지는 어느 것 하나라도
 어떤 댕바람에도 꺾이지 않는 당참을 보여 주는가.

아, 우린 너무 감동을 모르고 살아왔느니
 - 고재종, 「나무 속엔 물관이 있다」-

* 우듬지 : 나무의 꼭대기 줄기.

1. (가), (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가)와 (나)는 모두 공간의 이동에 따라 시상을 전개하여 화자의 태도 변화를 드러내고 있다.
- ② (가)와 (나)는 모두 현재형 진술을 사용하여 대상을 현장감 있게 그리고 있다.
- ③ (가)와 (나)는 모두 반복적으로 대상을 불러 화자의 정서를 부각하고 있다.
- ④ (가)는 (나)와 달리, 영탄적 표현을 활용하여 현실에 대한 화자의 비판적 의도를 드러내고 있다.
- ⑤ (나)는 (가)와 달리, 시각적 심상을 활용하여 시상을 종결함으로써 주제 의식을 강조하고 있다.

2. <보기>를 바탕으로 (가)와 (나)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기>

시인에게 영감을 주는 자연은 작품의 주요한 제재로 사용되어 다양한 양상으로 형상화된다. (가)는 황혼의 조명을 받으며 서로 화답하고 위로를 건네는 천지 만물의 관계를 바탕으로 '대역사'가 이루어지는 장면을 나타내고 있다. 그리고 (나)는 나무에 대한 섬세한 관찰을 통해 생명력을 드러내고, 생명의 원리를 깨닫는 감동을 놓치며 살아온 인간 삶에 대한 성찰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다.

- ① (가)에서 '뺨'을 매개로 '바지락을 캐는' 것과 '소금을 저 나르'는 것을 연결한 것은 '대역사'의 의미를 형상화하는 데 기여하고 있군.
- ② (가)에서 '황혼'이 '사방으로 던진' '가슴 뜨거운 불꽃'에 '녀살문 연꽃 몇 송이'가 '활짝 만개'하는 것은 만물이 서로 화답하고 교감함을 나타내고 있군.
- ③ (가)에서 '쉬어라 쉬어라 잠시 잠깐'은 '대역사'를 이루기 위해 애쓴 모두에게 자연이 위로를 건네는 것을 나타내고 있군.
- ④ (나)에서 '젓은 바람 속'에서도 '제 숨결 닿는 만큼의 찰랑한 허공을 끌어안'는 겨울 나뭇가지의 모습은 나무의 생명력이 다른 자연물에게 전이되고 있음을 드러내고 있군.
- ⑤ (나)에서 '아, 우린 너무 감동을 모르고 살아왔느니.'는 생명의 원리에 대한 깨달음이 인간 삶에 대한 성찰로 이어졌음을 드러내고 있군.

3. (나)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가지들이' '제 껌냥껏 한세상을 흔들거'리는 모습은 저마다 가치 있는 존재로 살아가고 있음을 드러내고 있군.
- ② '동치'는 감나무의 '웬만해선 흔들림이 없는' 중심을 의미하는 것으로 '주춧기둥'의 역할을 하는군.
- ③ '새'는 '실가지 하나에 얹'아 나뭇가지가 '그 무게를 견딜힘'을 지니고 있음을 드러나게 해 주고 있군.
- ④ '땅속'이 지닌 '칠후' 같은 어둠의 이미지는 '산 가지'의 '어떤 댕바람에도 꺾이지 않는 당참'과 대비되고 있군.
- ⑤ '땅심'이 베풀어 주는 '배려'는 '실뿌리'를 통해 '감나무'가 겨울을 이겨내도록 하는군.

[All-바르게 확인하는 정답 및 해설]

1.

[정답 SCAN] ②

② (가)에서는 ‘-는다’, ‘-니다’ 등의 현재형 시제를 사용하여 저녁 무렵 ‘서해 뺄’을 배경으로 펼쳐지는 장면의 현장감을 살리고 있다. (나)에서도 ‘-니다’를 사용하여 겨울 감나무를 보고 있는 것 같은 현장감을 드러내고 있다.

[오답 SCAN]

- ① (가)는 공간의 이동에 따른 시상 전개가 일어난다고 볼 수 있으나 화자의 태도 변화가 드러나지는 않는다.
- ③ (가)는 ‘너’를 대상으로 질문을 하고 있으나 반복적으로 대상을 부른다고 보기 어렵고, (나)에는 대상을 부르는 표현이 드러나지 않는다.
- ④ (가)에서 영탄적 표현을 통해 화자의 비판적 의도를 드러낸다고 보기 어렵다.
- ⑤ (나)는 시각적 심상을 활용하여 시상을 종결했다고 보기 어렵다.

2.

[정답 SCAN] ④

④ <보기>는 (가)와 (나)의 작품에서 자연이 형상화되는 양상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나)의 1연에서 ‘짚은 바람 속’의 겨울 나뭇가지가 ‘제 숨결 닿는 만큼의 찰랑한 허공을 끌어안’는다는 표현은, ‘모두 다 서로를 휘방 놓는 법이 없이’, ‘제 감냥껏 한세상을 흔들거린다.’와 연결하여 자신의 분수에 맞게 세상의 순리대로 나름의 존재를 드러내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적절하다. 나무의 생명력이 다른 자연물에게 전이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3.

[정답 SCAN] ④

④ ‘땅속’은 겨울나무가 생명을 이어가는 데 가장 중요한 물과 양분을 제공하는 터전이라는 점에서 생명력의 근원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어둠의 이미지를 드러낸다고 보기 어렵고 그것이 나무의 ‘당참’과 대비된다고도 보기 어렵다.